

강원지역 A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정상희 · 김은희

강릉영동대학교 치위생과

Image toward the elderl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Gangwon province

Sang Hee Jung · Eun Hee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angneung Yeongdong College

Received : 30 August, 2013
Revised : 22 November, 2013
Accepted : 3 Dec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Sang-Hee Ju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angneung Yeongdong, college
 Gong-Jaero(St), 357
 Gangneung city, Gangwon-do
 210-792, Korea.
 Tel : + 82-33-610-0390
 + 82-10-9247-7234
 Fax : + 82-33-610-0434
 E-mail : yredgirl@naver.com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age toward the elderl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The subjects were 348 college student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the students from May 15 to June 15, 2013. The questionnaire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people and image toward the elderly.

Results : As for the elderly people-relat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79.9 percent of the students had never received education on the elderly. Approximately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replied that they lived with elderly people and gave positive answers to living with elderly people out of filial duty and respect for the elderly. They got a mean of 79.78±10.60 out of 140 in image toward the elderly. Those who believe in religion and have more siblings tended to have a positive image toward the elderly people.

Conclusions : In order to have a positive image toward the elderly people, volunteer activity for the elderly people in senior welfare centers can make the students more positive to the elderly people.

Key Words : attitude toward the elderly,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he elderly, image of the elderly

색인 : 노인,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에 대한 태도, 치위생과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한국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저 출산 현상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층 인구가 증가해 2030년 까지 성장을 지속할 전망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1980년 3.8%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지난 2012년 11.8%로 30년간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그리고 고령인구는 2030년 24.3%, 2040년 32.3%등으로 늘어나 50년 동안 무려 20.5%나 급증할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다¹⁾.

이러한 추세는 고령까지 생존하는 많은 노인들에게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체적 노쇠와 경제활동의 단절로 인한 여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동반하는 노인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빠른 고령사회로의 진행에 반해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속도는 재정문제와 맞물려 고령사회의 진행 속도를 따르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²⁾.

또한 노인 인구수의 급증은 전체 인구수에 대한 노인 인구

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통사회에서 노인들이 누렸던 사회적 특권과 높은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 종종 연령차별로써 알려진 편견을 기반으로 노인을 취약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다³⁾.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노인들은 과거보다 더욱 건강수명도 연장되고 학력도 높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활동 욕구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노인 이외의 계층으로부터의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시각의 변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갖게 될 젊은 층들이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세대간의 접촉기회가 늘어남으로써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변화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여 이러한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집단 중 미래의 노인 복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젊은 층의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과 함께 해결되어야 또 하나의 과제는 기대수명이 아닌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인구강건강문제는 노인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함을 많은 연구에서 발표한 바 있다^{4,5)}. 하지만 향후 노인구강보건교육이나 예방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치위생과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노인의 구강건강향상에 있어 책임감과 올바른 가치관의 성립이 필요한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하고 나아가 노인구강건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노인관련 일반적 사항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개인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노인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고 차이를 비교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5월 15일부터 2013년 6월 15일까지 강원 지역 A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359명을 편의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359부로 응답이 불분명한 11부를 제외한 348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 설문지구성

설문지 구성내용은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관련 문항, 조사대상자의 노인관련 일반적 사항관련 문항, 조사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관련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의 노인관련 일반적 사항과 노인에 대한 이미지관련 측정도구는 이선자(1989)가 개발한 노인에 대한 측정도구를 임정빈(2007)이 재구성하여 측정된 것을 사용하였다⁶⁾.

3. 설문지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Cronbach's Alpha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특성' 14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705, '노인에 대한 지식 관련항목' 25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809, '노인에 대한 태도 관련항목' 20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790으로 나타났다(Table 1).

4. 통계분석방법

자료의 통계학적 분석은 SPSS 12.0 version for window을 이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관련 일반적 사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노인관련 지식은 t-검정, ANOVA test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95%신뢰수준으로 검정하였다.

Table 1.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Sec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
General features	14	0.705
Items related to knowledge of the elderly	25	0.809
Also of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20	0.790

† cronbach test

Table 2. General features

Item		Frequency (n=348)	Percentage (%)
Age	21 and under	227	65.2
	22 and over	121	34.8
Academic year	Freshman	120	34.5
	Sophomore	113	32.5
	Junior	114	32.8
	Senior	1	0.3
Religion	Religious	142	40.8
	Not religious	206	59.2
Marital status	Single	341	98.0
	Married	7	2.0
	The others		
	(separated, divorced or separated by death)	-	-
Where have you grown up?	Large cities (metropolitan cities, small and mid-sized cities)	52	14.9
	Small and mid-sized cities	215	61.8
	Rural areas	81	23.3
Type of family	Extended family(large family)	47	13.5
	Nuclear family(small family)	300	86.2
	The others	1	0.3
Number of sibling	0	17	4.9
	1	200	57.5
	2	87	25.0
	3 or more	44	12.6
Total		348	100.0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 특성에서는 21세 이하가 65.2%로 많았으며, 1학년 34.5%, 2학년 32.5%, 3학년 32.8%로 조사되었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59.2%, 미혼이 341명 98.0%로 나타났으며, 성장지역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14.9%, 중소도시 61.8%로 나타났고, 가족형태는 86.2%가 핵가족이었다(Table 2).

2. 연구대상자의 노인관련 일반적 사항

대상자들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경험은 32.5%가 근무경험이 있었고, 노인관련 지식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79.9%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노인과 동거 경험 여부에서는 56.0%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동거경험 내용으로는 60.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였다. 경로효친 사상이 계승되어야 하는가하는 문항에서는 52.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3.0%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3. 대상자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조사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미지점수는 총 14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대상자들의 전체 합계점수를 보면 79.78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었고, 세부적으로 보면, '진보적인-보수적인'이 5.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한-아픈'이 4.98점, '생산적인-비생산적인'이 4.58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명한-어리석은'에서 3.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신뢰할 수 있는-신뢰할 수 없는' 3.19점, '좋은-나쁜' 3.23점 등 긍정적인 이미지 점수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이미지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형제, 자매가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밖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령 및 학년이 낮을수록, 기혼자 일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었고, 성장한 지역이 중소도시 혹은 농, 어촌에서 성장한 대상자들에게,

Table 3. Elderly people-related general characteristics

Item	Frequency (n=348)	Percentage (%)	
Work experience in medical institutions	Experienced	113	32.5
	Not experienced	235	67.5
Education related to the elderly	Educated	70	20.1
	Not educated	278	79.9
Volunteer work experience for the elderly	Experienced	220	63.2
	Not experienced	128	36.8
Experience of living with elderly people	Experienced	195	56.0
	Not experienced	153	44.0
Feelings about living with elderly people	Positive	118	60.5
	Negative	14	7.2
	Have little idea	63	32.3
	Quite necessary	80	23.0
Inhering the ideas of filial duty and respect for the elderly	Necessary	183	52.6
	So-so	82	23.6
	Unnecessary	3	0.9
	Quite unnecessary	-	-
Total	348	100.0	

Table 4. Image of the elderly

Item	Mean ±SD
1. Wise ----- Foolish	3,15±1,11
2. Kind ----- Unkind	3,49±1,22
3. Well-informed ----- ignorant	3,70±1,06
4. Happy ----- Sad	4,13±1,07
5. Reliable - Unreliable	3,19±1,16
6. Generous ----- Selfish	3,41±1,27
7. Active ----- Passive	4,48±1,30
8. Neat ----- Untidy	3,87±1,24
9. Friendly ----- Unfriendly	3,42±1,14
10. Interesting ----- Boring	4,49±1,12
11. Productive ----- Unproductive	4,58±1,12
12. Healthy ----- Ill	4,98±1,26
13. Good ----- Bad	3,23±1,10
14. Flexible --- Unflexible	4,01±1,30
15. Independent ----- Dependent	4,31±1,35
16. Progressive ----- Conservative	5,26±1,24
17. Attractive ----- Unattractive	4,35±0,97
18. Patient -- Impatient	3,40±1,37
19. Optimistic ----- Pessimistic	4,07±1,13
20. Non-complaining --- Grouchy	4,44±1,26
Overall Image to the elderly	79,78±10,60

가족형태가 소가족일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었다(Table 5).

5. 노인 관련 일반적 사항에 따른 노인 이미지 조사

대상자들 중 노인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이미지 조사에서

는 노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78.7점,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대상자 78.6점, 노인과 동거경험이 긍정적이었던 대상자 76.7점, 경로효친 사상 계승의 긍정적인 답변을 한 대상자들이 75.9점, 79.9점으로 그렇지 않았던 대상자들보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였다(Table 6).

Table 5. Imag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elderly

	Item	Mean±SD	t,F-value	Frequency (n=348)
Age [†]	21 and under	79.5±11.0	-0.616	227
	22 and over	80.3± 9.9		121
Academic year [†]	Freshman	79.9±11.1 ^a	0.343	120
	Sophomore	79.2±10.7 ^a		113
	Junior	80.3±10.1 ^a		114
	Senior	75.0± 0.0		1
Religion [†]	Religious	78.4±10.9	-2.106 [*]	142
	Not religious	80.8±10.3		206
Marital status [†]	Single	79.9±10.7	2.257	341
	Married	75.2± 4.0		7
	The others (separated, divorced or separated by death)	-		-
Where have you grown up? [†]	Large cities (metropolitan cities, small and mid-sized cities)	81.8± 9.3	1.028	52
	Small and mid-sized cities	79.5±11.2		215
	Rural areas	79.4± 9.7		81
Type of family [†]	Extended family(large family)	80.0±8.3	0.048	47
	Nuclear family(small family)	79.8±10.9		300
	The others	77.0± 0.0		1
Number of sibling [†]	0	84.3± 7.7 ^a	6.076 ^{**}	17
	1	79.7± 9.5 ^a		200
	2	81.9±12.9 ^a		87
	3 or more	74.4± 9.1 ^b		44
Total				348

[†]Student T-test, ^{*}ANOVA test(Kruskal-Wallis analysis), ^{*}p<0.05, ^{**}p<0.01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미래의 노인구강건강향상에 있어 책임감과 올바른 가치관의 성립이 필요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여 향후 노인건강 발전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노인관련 일반적 사항을 살펴본 결과 노인관련 지식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여부는 79.9%가 없다고 응답하여 이와 같은 결과는 학과 특성상 국가시험 중심으로 맞춰져 노인관련 교육에 대한 교과목의 단독개설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노인과 동거 경험여부는 52.6%가 '있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동거경험 내용으로는 60.5%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으며 경로효친사상이 계승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52.6%가 '그렇다'로 23.0%가 '매우 그렇다'로 75.6%가 긍정적인 응답 결과를 보여 최7)의 연구에서 85.3%의 긍정적인 경로효친사상계승 필요성 응답을 보였던 것 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경로효친사상의 긍정적 이미지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최근 비록 핵가족이 많아지고 경로사상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경로효친사상이 사회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보여진다.

대상자의 노인이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 점수는 총 140점 만점에 평균점수 79.78±10.60 점으로 중립적인 범위(70-90점) 내에 있어 박과 조⁸⁾, 배⁹⁾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긍정적인 범위에 속해 있다는 결과를 얻은 조¹⁰⁾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보수적인 것(M=5.26)과 아픈 것(M=4.58)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 송¹¹⁾, 배¹²⁾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노인층은 대개 현재에 안주하고 익숙한 환경에서의 변화를 기피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 층들과의 갈등에서 오는 결과라 여겨지고 노인전문병원을 비롯하여 노쇠하여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을 가진 노인모습에 익숙해져 만들어진 이미지라 사료된다. 그밖에 다수 많은 문항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인결과를 보면 노인에 대한 공감각적인 전반적 이해와 긍정적 이미지변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이미지에 대해 살펴본

Table 6. Image of the elderly according elderly people-related general characteristics.

Item		Mean±SD	t,F-value	freq.
Work experience in medical institutions [†]	Experienced	79.3±10.4	-0.550	113
	Not experienced	80.0±10.7		235
Education related to the elderly [†]	Educated	80.8±11.6	0.859	70
	Not educated	79.5±10.3		278
Volunteer work experience for the elderly [†]	Experienced	78.7± 9.7	-2.514*	220
	Not experienced	81.6±11.9		128
Experience of living with elderly people [†]	Experienced	78.6±10.7	-2.279*	195
	Not experienced	81.2±10.4		153
Feelings about living with elderly people [†]	Positive	76.7± 9.6	9.589**	118
	Negative	88.5±17.0		14
	Have little idea	80.0± 9.2		63
	Quite necessary	75.9±10.6 ^a		80
Inhering the ideas of filial duty and respect for the elderly [†]	Necessary	79.9± 9.6 ^b	6.755**	183
	So-so	83.2±11.7 ^b		82
	Unnecessary	82.3± 6.7 ^b		3
	Quite unnecessary	-		-

[†]Student T-test, [†]ANOVA test(Kruskal-Wallis analysis), * p<0.05, ** p<0.01

결과 연령 및 학년이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기혼인 대상자, 성장한 지역이 중소도시 혹은 농,어촌에서 성장한 대상자들과 형제 자매가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그 중 종교를 가지고 있고(p<0.05)와 형제, 자매 수가 많을수록(p<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⁷⁾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집단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 기독교 집단인 경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였다는 배⁹⁾의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였고 이는 종교 활동을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또한 형제, 자매수가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최⁷⁾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이는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가족 집단 내에서 윗 사람을 대할 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암묵적인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에서 생긴 이미지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노인관련 일반적 사항에 따른 노인 이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5) 심과 김¹³⁾ 등의 연구결과에서 봉사경험이 있는 경우와 봉사경험이 없는 경우는 차이가 없으며 두 집단이 동일한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있는 집단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유의한 차이를(p<0.05)를 보여 한¹³⁾의 연구에서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대상자일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노인복지기관에서 봉사를 하거나 노인과 동거하여 노인과의 접촉기회가 많아짐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이해심이 생기게 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노인과의 동거관련 경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 집단(p<0.01)에과 경로효친사상을 계승해야 한다는 집단(p<0.01)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결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한¹³⁾의 연구에서 동거관련 경험의 느낌이 긍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결과와 같았다. 이는 노인과의 동거경험 여부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노인과의 접촉의 질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과 정¹⁴⁾의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회수된 자료만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미지에 대한 조사 분석만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향후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나 이미지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 방안제시를 위한 전문적 교육과 노인기관의 봉사의 실시 전 후를 비교한 객관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하고 노인 구강건강 향상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였으

며 2013년 5월 15일부터 2013년 6월 15일까지 강원지역 A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348명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노인관련 일반적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인관련 지식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여부는 79.9%가 없었고 노인과의 동거 경험여부는 52.%가 있었다. 또한 노인과의 동거경험에 대한 내용으로는 60.5%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고 경로효친사상이 계승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75.6%가 긍정적이었다.
2. 대상자의 노인 이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 점수는 총 140점 만점에 평균점수 79.78±10.60 점으로 중립적인 범위(70-90점) 내에 있었다.
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이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종교를 가지고 있고($p<0.05$)와 형제, 자매 수가 많을수록($p<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노인관련 일반적 사항에 따른 노인 이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집단($p<0.05$),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는 집단($p<0.05$), 노인과의 동거 관련 경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집단($p<0.01$), 또한 경로효친사상을 계승해야 한다는 집단($p<0.01$)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합적인 결론은 치위생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관련 단독 교과목의 개설을 통한 교육과 노인복지시설의 봉사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요구되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와 아울러 노인을 따뜻하게 공경하고 보살피는 전통적 윤리 의식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Social indicatios in Korea 2012, 2013, Seoul: Statistics Korea; 2012, 2013.
2. Nam SK, Parents support awareness and research on retirement[Master' s thesis], Seoul: Univ. of Dongguk, 1994.
3. Newman S, Faux R, Lanmer B. Children's views on aging: their attitudes and values. *Gerontologist* 1997; 37(2): 412-7.
4. Jang JY, Nam YS.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the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s of the elderly. *J Korea Soc Dent Hyg* 2012; 12(6): 1173-82.
5. Park JR, Lee YK. Research on the subjective status of oral cavity's health following senior citizens's characteristics. *J Korea Soc Dent Hyg* 2009; 9(3): 344-56.
6. Kim Kb, Im JB, Sok SY. Knowledge and attutudes of nurses toward elderly. *J East West Nurs Res* 2007; 13(1): 13-21.
7. Choi YG.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of the aged [Master' s thesis], Iksan: Univ. of Wonkwang, 2011.
8. Park HW, Cho BH.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care facilities for old people. *J Korean Acad Soc of Home Care Nurs* 2010; 17(1): 36-44.
9. Bea SR. Attitudes of nurse toward the elderly[Master' s thesis], Seoul: Univ. of Myongji, 2006.
10. Cho EY. Analysis of attitudes and knowledges toward the elderly among the medical docotors and nurses[Doctoral dissertation], Seosan: Univ. of Hanseo, 2006.
11. Song EJ. Nurses and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Doctor's degree]. Seosan: Univ. of Ewha Womans, 2003.
12. Sim SY, Kim JS. A study on knowledge of and attitude to the elderly among some dental hygienist. *J of Dent Hyg Sci* 2010; 10(2): 71-7.
13. Han JR.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Korea Gerontol Soc* 2003; 23(4): 181-94.
14. Kim YJ, Jung SA. Adolesc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exploring the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perception and behavioral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 of Kor Home Man Ass* 2001; 19(6): 173-83.

